

『黃帝內經』의 體質理論에 대한 研究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申龍燮·李容範

A study of constitutional theory in 『hwang-je-ne-gung(黃帝內經)』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四象醫學) currently became a more popular conception up to the public. Otherwise, a physical constitution is overused as a main term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四象醫學) without any perspicuous definition and distinction as far as we concerned about using the same term in various criteria. In other words, the conceptions of a physical constitution are understood differently depending on where those terms come from—the existing oriental medicine,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四象醫學), or eight constitutional medicine because those criteria have their different own standards of classification and construction about different constitution so that it cause diverse diagnoses, cures and prophylactics against constitutional diseases.

For this reason, 『young-choo(靈樞)』 and 『so-moon(素問)』 of 『hwang-je-ne-gung(黃帝內經)』 was evaluated as main references to see the conception of physical constitution. And through comparing two representative aspects of theory of physical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 medicine –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四象醫學), and eight constitutional medicine –the following results was gained.

1. The classification of constitution in 『hwang-je-ne-gung(黃帝內經)』 is drawn by the phenotypical differences, then classified types are like these- *bee-go-yok-in(肥膏肉人)*, *bee-soo-in(肥瘦人)*, *o-tae-in(五態人)*, *o-hyung-in(五形人)*.
2. The constitution in 『hwang-je-ne-gung(黃帝內經)』 is characterized by having reciprocity (天人相應), tendency, and predictability.
4. The constitution in 『hwang-je-ne-gung(黃帝內經)』 is worth as the application of principles from “*chee-byung-peel-gooer-bone(治病必求於本)*” and “*in-in-je-i(因人制宜)*” for diagnoses and as a active cures of preventive medicine for “*chi-mee-byung(治未病)*” by the *yang-saeng(養生)*.
5. The comparison between 『ne-gung(內經)』 and the medicine of constitution suggest 『ne-gung(內經)』 and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四象醫學) relationship between *chae(體) and young(用)*, the eight constitutional medicine (*ga-hwa(自火)and sang-hwa(相火)*) are all based on theory of *un and yang(陰陽說)*. As far as the point of view over subjects is concerned,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四象醫學) focused on *sung-jung(性情)*, 『ne-gung(內經)』 and eight constitutional medicine focused on a human natured by

the relationship of *chun-in-sang-eung*(天人相應).

6. Physical constitutions are classified in 『*ne-gung*(內經)』 like these- *bee-go-yook-in*(肥膏肉人) and *bee-soo-in*(肥瘦人), are assorted with the body shapes, *o-hyung-in*(五形人) is classification by *o-hang*(五行). And the major four constitutions, *te-um-in*(太陰人), *te-yang-in*(太陽人), *so-um-in*(少陰人), and *so-yang-in*(少陽人), sorted out by the sizes of *jang-gook*(臟局) developed from ones natures and tempers are subdivided into eight constitutions by the strength of organs.
7. Regarding how to define the state of the healthiness, *um-yang-hwa-pyung-gee-in*(陰陽和平之人) is considered a healthy state in 『*ne-gung*(內經)』, the state of *wan-shil-moo-byung*(完美無病) 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四象醫學), and the state between balanced and unbalanced(unbalanced state in the right way) in the eight constitutional medicine.

key words : *ne-gung*,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eight constitutional medicine.

I. 서론

體質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들어 四象醫學의 대중화로 韓醫學界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까지 너무나 쉽게 體質에 대한 얘기가 오가곤 한다. 그런데 體質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기존의 韓醫學에서의 體質 개념과 四象醫學의 體質 그리고 최근에는 팔체질의학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體質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분류방법 및 기본 사상이 달라 辨證 및 治法 나아가 養生에 있어서 적잖은 차이가 있다.

『東醫病理學』에서는 體質을 유전적으로 혹은 성장, 발육 과정에 대사, 기능 및 구조적으로 형성된 개체의 특성이라¹⁾ 하였고, 『臟象學』에서는 體質을 개체의 기능, 형태, 구조상 상대적으로 안정된 특수성이며, 생리상 개체의 생리반응의 특성으로 표현하였고, 병리상 개체의 발병경향성으로 표현된다고 하였으며, 大連醫學院編 『病生理學』을 인용해 "유기체의 유전성 및 획득성 특성의 합금"이라²⁾ 표현하였다. 또한 四象醫學에서는 전 영역에서 사람마다 서로 다른 개체의 특이성을 체질이라 하였다. 여기에는 각 개인이 지니는 정신적 혹은 육체적인 특징을 합하여 일컫는 말로 인간은 형태뿐만 아니라 체내의 구조와 기능 또는 재능과 정신상태까지 모두 나름대로의 체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³⁾고 보고 있다.

결국 체질은 선천, 후천적으로 형성된 개체의 구조적, 기능적 및 정신적 특성을 포함한 각 개체의 고유한 개성을 말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內經』의 體質觀과 四象體質 및 팔체질의학의 體質觀 간에 體質에 대한 인식과 기본 이론의 차이로 體質에 대한 이해가 다소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인은 본론에서 『黃帝內經』⁴⁾의 『靈樞』와

1) 문준전, 박종현, 안구석, 하지용 외, 東醫病理學, 一中社, 1998, pp193

2) 박찬국, 臟象學, 成輔社, p285-286

3) 全國韓醫科大學 四象醫學教室, 四象醫學, 集文堂, 1997, pp24

『素問』을 중심으로 『內經』의 體質이론을 고찰하고, 나아가 『內經』의 體質이론과 四象醫學 및 팔체질의학의 體質이론을 기본적인 몇몇 특징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비교 고찰함으로써, 體質理論에 있어서 『內經』의 중요성을 가늠하고, 體質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II. 『內經』의 體質觀

1. 『內經』에서의 체질에 대한 인식

1) 개체의 특성에 따른 生來의 차이점

『靈樞·論痛』에서 “筋骨之強弱, 肌肉之堅脆, 皮膚之厚薄, 腠理之疏密, 各不同……腸胃之厚薄堅脆亦不等”이라 하여 筋骨, 肌肉, 皮膚, 腠理 등의 차이에 따른 鍼石火烙에 대한 반응의 차이와 腸胃의 厚薄堅脆에 따른 藥物반응의 차이를 설명⁵⁾하고 있다. 『靈樞·壽夭剛柔』에서는 “人之生也, 有強有柔, 有弱有強, 有短有長, 有陰有陽”이라 하여 強柔, 弱強, 短長, 陰陽의 차이를 설명⁶⁾하고 있다. 또한 『靈樞·通天』에서 “太陰之人, 少陰之人, 太陽之人, 少陽之人, 陰陽和平之人, 凡五人者, 其態不同, 其筋骨氣血各不等”이라 하여, 體質별로 態와 筋骨, 氣血의 차이가 있음을 설명⁷⁾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각 개체가 구조적으로는 臟腑의 厚薄堅脆의 차이로 筋骨, 肌肉, 皮膚, 腠理 등이 각각의 개성으로 나타나고, 기능적으로는 각각의 動態와 氣血의 차이로 나타나며, 類型으로는 太少陰陽人과 陰陽和平之人의 五態人과 같은 體質적 특성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구조적 기능적인 개성을 바탕으로 각 개체는 強柔, 強弱, 短長, 陰陽의 차이를 삶에서 보이게 됨을 알 수 있다.

2) 개체의 특성에 따른 발병의 경향성

『靈樞·論痛』에서 “同時而傷, 其身多熱者易已, 多寒者難已”라 하여 身의 寒熱의 차이에 따른 발병의 豫候를 설명⁸⁾하고 있다. 『靈樞·論勇』에서 “有人於此, 竝行竝立, 其年之長少等也, 衣之厚薄均也, 卒然遇烈風暴雨, 或病或不病, 或皆病, 或皆不病”이라 하여 外感風雨에 의한 발병의 경향성을 설명⁹⁾하고 있고, 또한 色과 皮膚와 肌肉에 따라 外感에 반응하는 발병의 경향성을 설명¹⁰⁾하고 있다. 특히 『靈樞·五變』에서는 “一時遇風, 同時得病, 其病各異”라 하여 체질상의 차이가 있음을 극명히 밝히고¹¹⁾ 있으며, 皮膚, 肌肉, 腠理, 骨, 五臟의 차이에 따라 風, 消癯, 寒熱, 痺, 腸中積聚 등의 발병경향성¹²⁾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因形而生病”이라 하여 目的 沈淺과 鵠骨의 大小로서 形

4) 洪元植: 東洋醫學에 있어서 人性類型에 관한 研究, 東洋醫學 제3권 82.06

5) 上揭書 『靈樞』 p240

6) 上揭書 『靈樞』 p57

7) 上揭書 『靈樞』 p302

8) 上揭書 『靈樞』 p240

9) 上揭書 『靈樞』 p232

10) 上揭書 『靈樞』 p232.

“黃色薄皮弱肉者…白色薄皮弱肉者…青色薄皮弱肉者…赤色薄皮弱肉者…黑色而皮厚肉堅…其皮薄而肉不堅, 色不一者…病矣. 其皮厚而肌肉堅者…不病矣. 其皮厚而肌肉堅者…乃病.”

11) 上揭書 『靈樞』 p210

12) 上揭書 『靈樞』 p232.

“人之善病風厥澀汗者, 何以候之?…肉不堅, 腠理疏, 則善病風, …何以候肉之不堅也?…腦肉不堅, 而無分理, 理者粗理, 粗理而皮不緻者 腠理疏…人之善病消癯者, 何以候之?…五藏皆柔弱者, 善病

象에 의한 診斷의 가능성도 제시¹³⁾하고 있다. 또한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上古聖人, 論理人形, 列別臟腑…”라 하여¹⁴⁾ 人形을 통한 臟腑와 經絡의 구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2. 체질의 형성

『素問·寶命全形論』에서 “人以天地之氣生, 四時之法成”이라 하여¹⁵⁾ 각 개체의 근본이 天地와 四時之氣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天人相應”하는 內經의 기본사상으로 각 개체의 형성 역시 각 개체 중심이 아닌 外氣인 天地之氣와의 연관성에 있음을 알 수 있다.

1) 선천적 영향

- 氣血陰陽을 중심으로한 생명의 본질로서의 개체의 형성

『靈樞·天年』에서 “人之始生”과 “死”에 대하여 “以母爲基, 以父爲楨 … 得神者生 … 血氣已和, 榮衛已通, 五藏已成, 神氣舍心, 魂魄畢具, 乃成爲人”이라¹⁶⁾하여 受胎를 통한 생명의 탄생을 설명하였고, “其氣之盛衰, 以至其死”라 하여 氣血盛衰에 따라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素問·寶命全形論』에서는 “人以天地之氣生”이라¹⁷⁾하였는데, 이는 인간이 天地陰陽에 相應하는 생명체로서 외부기후 등의 天氣와 五味 등의 地氣에 영향을 받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靈樞·通天』과 『靈樞·陰陽二十五人』에서는 “天地之間, 六合之內, 不離於五, 人亦應之”라 하여, 모든 개체가 五行의 規律를 통해 天地陰陽에 적응함을 설명¹⁸⁾¹⁹⁾하고 있다.

인간의 體質형성 역시 生命의 본질로서 우선 父母의 精氣를 이어받아 氣血이 化生하여 生命이 발생하게 되고, 天地의 大氣와 상호교류를 통해서 성장, 발육하며, 氣血의 衰함에 따라 生命力이 다해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靈樞』에서는 이를 五行의 규율로서 나누어 설명하여 五種의 體質유형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2) 후천적 영향

『素問·徵四失論』에서는 “不適貧富貴賤之居, 坐之薄厚, 形之寒溫, 不適飲食之宜, 不別人之勇怯, 不知比類, 足以自亂, 不足以自明, 此治之三失也”라²⁰⁾하여 貧富貴賤의 居處와 알맞은 음식, 身體의 寒熱과 性情을 구분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體質과 性情 및 적절한 음식과 사회적 환경의 관계성을 통하여 體質형성의 과정에 있어서 후천적인 영향의 중요성을 극명히 밝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① 지리적인 영향

『素問·異法方宜論』에서 “東方之域, 天地之所始生也, 魚鹽之地, 海濱傍水, 其民食魚而嗜鹹, 皆安其

消導…此人薄皮膚, 而目堅固以深者, 長衝直揚…人之善病寒熱者, 何以候之?…小骨弱肉者, 善病寒熱…何以候骨之小大…顴大則骨大, 顴小則骨小…故善病寒熱也…何以候人之善病痺者?…粗理而肉不堅者, 善病痺人之善病腸中積聚者, 何以候之? 少俞答曰, 皮膚薄而不澤, 肉不堅而淖澤…”

- 13) 上揭書 『靈樞』 p211
- 14) 上揭書 『素問』上 p68
- 15) 上揭書 『素問』上 p383
- 16) 上揭書 『靈樞』 p241
- 17) 上揭書 『素問』上 p383
- 18) 上揭書 『靈樞』 p302
- 19) 上揭書 『靈樞』 p274
- 20) 上揭書 『素問』下 p486

處。美其食。魚者使人熱中，鹽者勝血，故其民皆黑色踈理，其病皆爲癰瘍，其治宜砭石。故砭石者，亦從東方來。西方者金玉之域，沙石之處，天地之所收引也，其民陵居而多風，水土剛強，其民不衣而褐薦，其民華食而脂肥，故邪不能傷其形體，其病生於內，其治宜毒藥。故毒藥者，亦從西方來。北方者，天地所閉藏之域也，其地高陵居，風寒冰冽，其民樂野處而乳食，臟寒生滿病，其治宜灸焫，故灸焫者，亦從北方來。南方者，天地所長養，陽之所盛處也，其地下，水土弱，霧露之所聚也，其民嗜酸而食附，故其民皆繳理而赤色，其病癰痺，其治宜微鍼，故九鍼者，亦從南方來。中央者，其地平以濕，天地所以生萬物也衆，其民食雜而不勞，故其病多痿厥寒熱，其治宜導引按蹻，故導引按蹻者，亦從中央出也”라²¹⁾하여 東西南北中央의 지역차에 따른 식생활, 풍토, 생활양식, 발병양식 등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풍토의 차이가 體質형성에 주는 영향을 크게 두 가지 면으로 살펴볼 수 있겠다. 첫째는 發病의 양상 면에서 풍토에 순응하여 無病하는 경우와 역행하여 發病하는 경우로 前者의 경우는 그 지역에 적응하여 계속 살아남아 개체의 특성을 유지할 것이고, 後者의 경우는 질병으로 도태되어 개체의 특성이 소멸될 것이다. 둘째는 지역차에 의한 五行 속성의 편차가 각 개체의 臟腑 속성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역시 생존과 도태의 양상을 보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② 사회 신분의 영향

『靈樞·根結』에서 “…人骨節之小大，肉之堅脆，皮之厚薄，血之清濁，氣之滑澀，脈之長短，血之多少，經絡之數，…布衣匹夫之士…王公大人，血食之君，身體柔脆，肌肉軟弱，血氣慄悍滑利…其刺之徐疾淺深多少…刺布衣者，深以留之，刺大人者，微以徐之…”이라 하여 布衣匹夫와 王公大人 간의 骨節, 肉, 皮, 血, 氣, 脈, 經絡之數와 음식습관의 차이로 인한 氣血상태에 따라서 針刺의 방법을 달리하여야 함을 설명²²⁾하고 있다.

『素問·腹中論』에서는 “夫熱中消中者，皆富貴人也，今禁高粱，是不合其心，禁芳草石藥，是病不愈…”라²³⁾하였다. 이는 신분과 환경에 따른 질병의 양상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으로 體質의인 접근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3. 『內經』에서의 體質 분류

1) 臟腑구조에 따른 분류

『靈樞·本臟』에서는 “心小則安…心大則憂不能傷…心高則滿于肺中…心下則藏外，易傷于寒，…心堅則藏安守固，心脆則善病消瘴熱中，心端正則和利難傷，心偏傾則操持不一…肺小則少飲…肺大則多飲…肺高則上氣…肺下則居賁迫肺…肺堅則不病欬上氣，肺脆則苦病消瘴易傷，肺端正則和利難傷，肺偏傾則偏痛…肝小則藏安…肝大則逼胃…肝高則上支賁…肝下則逼胃…肝堅則藏安難傷，肝脆則善病消瘴易傷，肝端正則和利難傷，肝偏傾則脅下痛…脾小則藏安…脾大則苦溲眇而痛…脾高則眇引季脅而痛，脾下則下加于大腸…脾堅則藏安難傷，脾脆則善病消瘴易傷，脾端正，則和利難傷，脾偏傾，則善滿善脹…腎小則藏安難傷，腎大則善病腰痛…腎高則苦背膂痛…腎下則腰尻痛…腎堅則不病腰背痛，腎脆則苦病消瘴易傷，腎端正則和利難傷，腎偏傾則苦腰尻痛…”이라 하여 五臟의 大小, 高下, 堅脆, 端偏의 차이에 따른 증상의 차이를 설명²⁴⁾하고 있다. 이는 先天的인 臟腑

21) 上揭書 『素問』上 p189

22) 上揭書 『靈樞』p51

23) 上揭書 『素問』上 p138

24) 上揭書 『靈樞』pp213-214

의 구조로 인한 발병의 경향성이며, 臟腑의 大小, 高下, 堅脆, 端偏에 따른 개체별 차이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 각 개체의 臟腑구조 및 기능적 차이를 입증한다고 볼 수 있고, 각 體質별로 臟腑의 구조와 기능의 차이를 고려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다.

2) 痛症의 忍, 不忍(勇怯)에 따른 분류

『靈樞·論勇』에서 “夫忍痛與不忍痛者，皮膚之薄厚，肌肉之堅脆，緩急之分也 … 勇士者，目深以固，長衡直揚，三焦理橫，其心端直，其肝大以堅，其膽滿以傍，怒則氣盛而胷張，肝舉而膽橫，皆裂而目揚，毛起而面蒼 … 怯士者，目大而不減，陰陽相失，其焦理縱，髑肝短而小，肝系緩，其膽不滿而縱，腸胃挺，膈下空，雖方大怒，氣不能滿其胷，肝肺雖舉，氣衰復下，故不能久怒 …”라 하여 통증의 차이를 皮膚와 肌肉의 차이에 두었고, 勇士와 怯士의 臟腑의 인 차이를 근거로 外形의 차이와 性向을 설명²⁵⁾하고 있다. 이는 勇怯의 측면에 있어서 각 개체의 臟腑의 구조와 기능의 차이에 따라 皮膚, 肌肉이 구성되며, 이렇게 구성된 개체의 특성에 의해 각각 痛症의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

고 있음을 설명하는데, 이는 不忍痛하는 체질과 忍痛하는 체질의 양면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외모와 외형의 차이를 근거로 각 개체의 視診을 통한 體質진단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素問·經脈別論』에서는 “凡人之驚恐勞動靜，皆爲變 … 勇者氣行則已，怯者則着而爲病也”²⁶⁾하여 감정의 변화에 따른 勇怯의 차이에 의한 발병의 양상을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診病之道，觀人勇怯骨肉皮膚，能知其情，以爲診法 …”이라 하여 診斷의 기준을 勇怯, 骨肉, 皮膚를 관찰하여 性情을 파악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3) 刺鍼의 反應(陰陽氣血의 多少)에 따른 분류

『靈樞·行鍼』에서 “百姓之血氣，各不同形”이라 하여 血氣에 따른 體質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고, “重陽之人，其神易動，其氣易往也 … 矯矯高高，言語善疾，舉足善高，心肺之藏氣有餘，陽氣滑盛而揚，故神動而氣先行 … 多陽者，多喜，多陰者，多怒，數怒者，易解 … 其陰陽之離合難，故其神不能先行也 … 陰氣多而陽氣少，陰氣沈而陽氣浮者內藏，故鍼已出，氣乃隨其後，故獨行也 … 多陰而少陽，其氣沈而氣往難…”이라 하여 陰陽氣血의 多少에 따라 重陽(多陽), 多陰, 陰氣多陽氣少, 多陰少陽의 상태로 구분하여 刺鍼함을 설명²⁷⁾하고 있다. 이는 針刺의 운용에 있어서 각 개체의 氣血과 陰陽의 多少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하여야 함을 제시하고, 특히 重陽之人의 경우엔 陰陽의 多少와 臟腑와의 연관성을 제시하고 있다.

4) 體型에 의한 분류 - 肥膏肉人和 肥瘦人

『靈樞·衛氣失常』과 『靈樞·逆順肥瘦』에서 각각 體型면에서 肥膏肉人和 衆人, 肥瘦人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먼저 『靈樞·衛氣失常』²⁸⁾에서는 肉과 皮의 상태로 각 체형의 기준을 삼아, 肥人은 “膈肉堅 皮滿者”, 膏人은 “膈肉不堅 皮緩者”, 肉人은 “皮肉不相離者”이라 정의하였고, 腠理의 粗細에 따라 身의 寒溫을 나누었는데, “肥人 중 粗理者는 身寒하고, 細理者는 身熱하며, 膏人 중 粗理者는 身寒하고, 細理者는 身熱하다”고 하였다. 또한 각각의 氣血多少를 근거로 肥瘦大小의 외형을 설명하였는데, “肥人은 其血清, 氣滑少하여 其身收小(不能大)하며, 膏人은 多氣(熱)하여 能縱腹

25) 上掲書 『靈樞』 pp232-233

26) 上掲書 『素問』 上 p329

27) 上掲書 『靈樞』 pp292-293

28) 上掲書 『靈樞』 p256

垂腴하며, 肉人是 多血하여 充形(平)하며 身體容大(上下容大)하다”고 하였다.

이와 구별하여 “衆人是 皮肉脂膏, 不相加하고, 血與氣, 不能相多하여 其形이 不小不大”하다고 하여 肥膏肉人和 구분하였다.

『靈樞·逆順肥瘦』²⁹⁾에서는 鍼刺에 있어서 肥人, 瘦人, 常人, 壯士眞骨, 嬰兒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肥人은 선천적으로 “年質壯大, 血氣充盈, 膚革堅固”하며, 외형적으로는 “廣肩腋, 項肉薄, 厚皮而黑色, 脣臨臨然”하여 “其血黑以濁, 其氣滯以遲”하는 病理的인 경향성을 보이며, 瘦人은 선천적으로 “其血清氣滑”하며, 외형적으로 “肉廉廉然, 薄脣輕言”하여 “易脫于氣, 易損于血”하는 病理的인 경향성을 보인다. 常人은 “其血氣

和調”로 “視其白黑, 各爲調之, 其端正敦厚”라 하였고, 壯士眞骨者는 “堅肉緩節監監然”이라 하였는데, 病이 重하면 “氣滯血濁”하고, 輕하면 “氣滑血清”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嬰兒의 경우는 “其肉脆, 血少氣弱”라 하여 연령에 따른 개체의 생리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5) 五態人 분류

『靈樞·通天』³⁰⁾에서 “陰人”과 “陽人”을 구분하는데, 太陰, 少陰, 太陽, 少陽, 陰陽和平之人的 五種으로 大別하였으며, 各各은 性格, 病理현상, 外形차이의 따라 유형을 나누는 기준으로 삼았다. 性格을 기준으로, 太少陰陽人은 各各의 性向에 치우쳐 好惡가 分명한 반면, 陰陽和平之人은 치우침이 없이 안정됨을 설명하고 있다. 前者의 4개 類型은 陰陽偏差의 경향에 의한 각 개성의 특성³¹⁾을 나타내는 반면, 後者의 경우는 치우침 없이 적절한 성인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古之善用鍼艾者, 視人五態, 乃治之. 盛者寫之, 虛者補之”이라 하여 治療에 있어서의 五態를 근거로 大法를 설정하였는데, 太少陰陽人은 各各 陰陽의 多少와 經絡, 臟腑, 氣血의 多少를 기준으로 하여 病理 경향성과 治法을 설명하고 있고, 陰陽和平之人的 경우는 血脈이 조화된 無病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五態人의 鑑別진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외형상의 특징도 아울러 기재되어 있다. 결국, 太少陰陽人 各各은 衆人和 구분되는 특유의 외형적 특징이 있고, 특히 陰陽和平之人을 君子라 하여 본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五形人분류

『靈樞·陰陽二十五人』에서는 “先立五形金木水火土, 別其五色, 異其五形之人, 而二十五人具矣.”라³²⁾하여 개체의 유형을 五行을 근거로 各各의 色을 구분하여 5종으로 분류하였고, 陰陽의 盛衰에 따라 五音의 太少를 구분하여 25종의 類型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외형상의 차이를 중심으로 구별한 것으로 腴色, 形態, 舉止, 性格, 氣候適應力 등의 특징도 아울러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이 衆人和 구분되는 각 개체의 독특한 특성으로 개체의 특성에 따른 體質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脈之上下, 血氣之候, 以知形氣”이라 하여 각 經絡의 氣血의 多少에 근거하여 외형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經絡의 외형을 통해 각 經絡의 氣血의 盛衰를 판단하는 診斷的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內經』에서는 개체의 형성과 성장 및 변화과정에 생활환경, 성격 및 외형, 臟腑經絡, 氣血多少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9) 上揭書 『靈樞』 pp188-189

30) 上揭書 『靈樞』 pp302-303

31) 주 - 생리적인 반응성과 병리적인 경향성

32) 上揭書 『靈樞』 p274

4. 『內經』에서의 체질의 특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內經』에서 體質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환경과의 상관성

『素問·寶命全形論』, 『靈樞·通天』, 『素問·徵四失論』, 『素問·異法方宜論』, 『靈樞·根結』 등에서 환경과의 상관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天人相應”의 관점으로서,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첫째는 각 개체가 天氣와 地氣에 영향을 받음 속에서 끊임없이 받음을 의미하고, 둘째는 각 개체가 오랫동안 환경(풍토와 식생활 등)에 대해 적응과 도태를 거듭하여 각각의 體質의 인 특성을 형성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환경 속에서 陰陽五行의 규율에 맞게 살아가는 각 개체의 적응성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2) 生理 및 病理의 경향성

『素問·逆調論』, 『靈樞·逆順肥瘦』, 『靈樞·壽夭剛柔』, 『靈樞·論痛』, 『靈樞·論勇』, 『靈樞·五變』, 『素問·異法方宜論』, 『素問·腹中論』, 『靈樞·行鍼』, 『靈樞·衛氣失常』, 『靈樞·通天』 등에서 경향성을 설명하고 있다. 類型的인 體質분류에 의하면 각각의 體質은 특성에 맞게 성격, 외형, 행동 및 기후적응 등의 生理 및 發病에 있어서 病理的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病理변화의 예측성

『靈樞·逆順肥瘦』, 『素問·厥論』, 『靈樞·論痛』, 『素問·異法方宜論』, 『素問·腹中論』, 『靈樞·論勇』, 『靈樞·行鍼』, 『靈樞·陰陽二十五人』 등에서 예측성을 설명하고 있다. 각 개체의 生理的인 차이를 바탕으로 그에 따른 病理的인 변화의 양상을 예측하여, 각 體質의 病理변화를 판단할 수 있음을 말한다. 이는 질병을 治療하고 나아가 豫防 할 수 있음을 제시하여 준다.

5. 『內經』에서의 체질의 가치

體質은 각 개체가 갖는 독특한 개성으로서 衆人과 구별되며,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과 동태를 파악하여 生理的인 경향성과 發病양상을 예측함으로써 診斷과 治療 및 豫防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 診斷

- 治病必求於本, 因人制宜의 원칙에 적용

『素問·經脈別論』에서 “診病之道, 觀人勇怯骨肉皮膚, 能知其情, 以爲診法也”³³⁾하여, 病을 診斷하기 이전에 먼저 각 개체의 유형을 알아야 함을 설명하고 있고, 『素問·三部九候論』에서 “必先度其形之肥瘦, 以調其氣之虛實…”³⁴⁾하여, 역시 각 형태로서 氣의 虛實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아, 각 개체의 類型에 따른 體質인식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五態人으로 類型을 나눈 『靈樞·通天』에서는 “謹診其陰陽, 視其邪正, 安容儀, 審有餘不足, 盛則寫之, 虛則補之, 不盛不虛, 以經取之”³⁵⁾하여 陰陽盛衰와 正邪의 변화를 파악하여, 經絡을 통하여 補

33) 上揭書 『素問』 上 p329

34) 上揭書 『素問』 上 p310

寫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調陰陽，別五態人”이라³⁶⁾하여 각 개체의 감별을 통하여 陰陽을 조절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五形人으로 類型을 나누는 『靈樞·陰陽二十五人』에서 “美眉者，足太陽之脈，氣血多。惡眉者，血氣少。其肥而澤者，血氣有餘。肥而不澤者，氣有餘，血不足，瘦而無澤者，氣血俱不足”이라³⁷⁾하여 外形을 통한 氣血의 盛衰를 診斷함을 나타내고 있고, “審察其形氣有餘不足而調之”라³⁸⁾하여 診斷의 목적을 밝히고 있으니, 결국 形氣의 有餘不足을 조절하여 각 개체에 적절한 상태³⁹⁾로 복귀 하여야함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는 體質을 선별하는 것이 病을 治療함에 우선시 되어야하고, 각 體質에 맞게 治療해야함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內經의 근본인 “治病必求於本”의 정신과 “因人制宜”의 방법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2) 治療 및 豫防

-治未病의 豫防醫學인 적극적인 치료

『內經』에서의 類型의인 體質구분을 바탕으로, 體質의 특성인 경향성과 예측성을 통하여서, 疾病의 病理변화를 파악하고, 治療에 임할 수 있으며, 나아가 體質의인 生理에 맞게 養生을 하여 疾病을 豫防할 수 있다. 이는 『素問·八正神明論』에서 “上工救其萌芽 … 下工救其已成…”이라⁴⁰⁾고한, 上工의 治療精神과 『素問·四氣調神大論』에서 “聖人不治已病，治未病，不治已亂，治未亂”이라⁴¹⁾고한, 聖人の 治療精神과 豫防醫學의인 적극적인 治療란 점에서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III. 고찰

『內經』과 體質醫學은 관찰 및 치료의 대상면에서 인간에 중점을 둔 것은 사실이나, 인간 자체를 중심으로 하였는지, 자연과의 상관관계에서의 인간을 다루었는지의 차이가 있고, 이에 대한 중심사상의 차이가 있으며, 體質에 대한 분명한 인식은 있지만 각각 類型을 나누는 기준과 그 類型이 다르며, 이에 따른 病因과 治法 또한 다르다.

이론면에 있어서 『內經』은 도가사상을 기초로 陰陽五行을 주인식의 도구로 사용⁴²⁾하였고, 四象醫學은 유학의 인간중심사상을 기초로 四象을 주인식의 도구로 사용⁴³⁾하였으며, 팔체질의학은 기독교

35) 上揭書 『靈樞』 p302

36) 上揭書 『靈樞』 p302

37) 上揭書 『靈樞』 p274

38) 上揭書 『靈樞』 p274

39) 주 - 陰陽和平之人인 君子의 상태 즉, 각 개체의 氣血이 적절하게 유지된 상태.

40) 上揭書 『素問』 上 p391

41) 上揭書 『素問』 上 p20

42) 본 논문 II의 [2] 참고

43)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集文堂, 1997 p60.

“天生萬物 有物有則 人形物野 人性則也, 以人形其人性 有物有則一而不二者謂之太極. 性有性用 性用知也, 形有形用 形用行也, 一知一行 一生一成 易簡相得者 謂之兩儀. 知有舒券 舒而決 卷而覺也, 行有進退 進而動 退而止也, 一決一覺 一動一止 一舒一卷 一進一退 變靜一動化者 謂之四象.”(『四象醫學草本卷』, 第四通). 四象의 의미는 事物의 構成的要素(體)와 變化的 要素(用)을 四物類의으로 요약하는 정신이다.

교의 사상을 기초로 하여 火理를 주인식의 도구로 사용44)하였다.

四象醫學 「本體論」에서의 體와용의 關係45)과 팔체질의학의 自火와 相火의 關係를 통한 火理46)는 『內經』에서 相互作用하는 陰陽論과 상응하는 점이 있으며, 팔체질의학에서의 自火와 相火의 關係성47)은 “天人相應”하는 『內經』의 이론과 유사점이 있고, 『內經』의 「生氣通天論」의 生氣48)와 팔체질의학의 自火49)는 개체 생명의 근본을 각각 生氣인 陽氣50)와 自火의 火3位1體51)로 보는 점에서 그 유사성을 찾아 볼 수 있다.

대상면에 있어서 「本體論」과 「性命論」52)을 중심으로 한 四象醫學은 인간 본연의 性情에 그 중심을 두고 있으며, 『內經』과 팔체질의학은 각각 인간과 자연, 自火와 相火와의 關係 속에서의 인간과 생명체에 그 중심을 두고 있다.

44) 권도원, 화리(火理/Pyrologos), 과학사상30, 99.8 pp258-276(XIV - XII).

“火理란 인간을 위시한 모든 동식물의 생명작용과 저 빛나고 변화하며 생동하는 활우극의 운행이 다 火의 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이론체계를 말한다. 여기서 火란 火3位1體로서 光과 熱과 力이 하나로 되어 모든 생명작용이 火3現인 明, 熱, 動으로 발현되게 된다. 火를 自火와 相火로 나누고, 自火는 생물과 천체가 소유하는 자체의 불을, 相火는 생명체의 생명현상을 발현시키는 火로서, 지구의 생명체에 있어서는 태양이 相火가 되고 태양의 自火에 있어서는 태양계를 이끄는 모행성이 相火가 되는 것으로 결국, 모든 생명운동은 自火와 相火와의 만남(火理)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법칙으로 만물과 우주는 우주화리를 이루게 되고, 이는 宇宙原因火에 연결되게 된다. 宇宙原因火은 우주에 편재하는 전 宇宙火의 존재 원인이 되는 본체로서 창조신의 절대 자존을 상징하는 것이다.”

45) 上揭書 「四象醫學」 p63. “四象의 의미는 事物의 構成的 要素(體)와 變化的 要素(用)을 四物類的으로 요약하는 정신이다.”

46) 上揭書 「과학사상」 p276(XII).

“火를 自火와 相火로 나누고, 自火는 생물과 천체가 소유하는 자체의 불을, 相火는 생명체의 생명현상을 발현시키는 火로서, 지구의 생명체에 있어서 태양이 相火가 되고...”

47) 上揭書 「과학사상」 p276(XII).

“모든 생명운동은 自火와 相火와의 만남(화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48) 上揭書 「素問」 上 p32.

生氣, 卽 人體의 陽氣. 姚止庵說: “生氣者何? 生生之氣, 陽氣也.”

49) 각주 58)참고

50) 上揭書 「素問」 上 p36.

“陽氣者, 若天與日, 失其所, 則折壽而不彰. 故天運當以日光明, 是故陽因上而衛外者也.”

51) 上揭書 「과학사상」 p276(XII).

“인간을 위시한 모든 동식물의 생명작용과 저 빛나고 변화하며 생동하는 활우극의 운행이 다 火의 법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火란 火 3위1체로서 光과 熱과 力이 하나로 되어 모든 생명작용이 火 3現인 明, 熱, 動으로 발현되게 된다.”

52) 上揭書 「四象醫學」 p63.

“「性命論」에서 우주와 인간과의 關係를 ‘天人性命’의 四象構造로 설명하고 있는데, 인간을 중심으로해서 대외적으로 벌어지는 現象을 ‘天機’와 ‘人事’로 대내적인 現象을 慧覺인 ‘性’과 資業인 ‘命’으로 설명하고 있다.”

類型的 구분에 있어서 『內經』은 크게 3가지로 그 유형을 나누었는데 體型에 의해 肥膏肉과 肥瘦人으로, 陰陽을 기준으로 太少陰陽人과 陰陽和平之人으로, 五行을 기준으로 木火土金水形人으로 각각 나누었다⁵³⁾. 四象醫學은 性情的 升降에 의한 臟局의 大小에 따라 太少陰陽人⁵⁴⁾으로, 팔체질의 학은 臟器의 強弱에 의해 金양, 목양, 금음, 목음, 토양, 토음, 수양, 수음인⁵⁵⁾으로 분류하였다.

臟腑(臟器)의 大小(強弱)를 보는 관점이 『內經』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지만, 『靈樞·本臟』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제시⁵⁶⁾하고 있으며, 四象醫學⁵⁷⁾과 팔체질의학⁵⁸⁾에서는 각각 肺脾肝腎의 臟腑의 大小와 간심체폐신의 臟器의 強弱의 차이에 따라 나누었다.

四象醫學과 팔체질의학은 臟腑의 구조적인 면에서 最大 臟腑와 最小 臟腑, 最強 臟器와 最弱 臟器에 따라 유사한 점(표7참고)이 있으나, 臟腑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四象醫學은 性情에 따라 臟局의 大小가 결정된다고 보고⁵⁹⁾ 있는 반면에, 팔체질의학은 “선천적인 내부 장기기능의 불균형 구조⁶⁰⁾”라 하여 性情에 원인을 둔 四象醫學과는 차이가 있다.

感覺的인 면에 있어서 『內經』에서는 勇怯人으로⁶¹⁾ 나누었으며, 四象醫學에는 哀怒喜樂의 性情의 조절이 관건⁶²⁾이 되고, 팔체질의학에서는 체질별 性情⁶³⁾ 외에도 교감신경긴장체질과 부교감신경긴

53) 본 논문 II의 ㉑의 5. 유형적 體質분류 참고

54) 上揭書 『四象醫學』 p82.

臟腑大小의 決定과 性情의 작용 : “太陽人 哀性遠散而 怒情促急, 哀性遠散則氣注肺而 肺益盛怒情促急則 氣激肝而肝益削 太陽之臟局 所以成形於肺大肝小也 少陽人怒性宏抱而 哀情促急, 怒性宏抱則氣注脾而 脾益盛 哀情促急則 氣激腎而腎益削 少陽之臟局 所以成形於脾大腎小也 太陰人喜性廣張而 樂情促急, 喜性廣張則氣注肝而 肝益盛 樂情促急則 氣激肺而 肺益削 太陰之臟局 所以成形於肝大肺小也 少陰人 樂性深確而 喜情促急, 樂性深確則氣注腎而腎益盛 喜情促急則 氣激脾而脾益削 少陰之臟局 所以成形於腎大脾小也”

55) 權度沅, 體質針 治療에 관한 研究, 대한한의학회보 21호, 1996, pp32-33.

: 팔체질의 개정

56) 본 논문 II의 ㉑의 4의 1) 臟腑구조에 따른 개체의 차이 참고

57) 上揭書 『四象醫學』 p82

臟腑大小의 決定과 性情의 작용

“太陽人 … 肺大肝小 少陽人 … 脾大腎小 太陰人 … 肝大肺小 少陰人 … 腎大脾小”

58) 金淑喜, 김화영, 權度沅, 金容沃외, 體質의학의 체질분류법에 따른 식품기호도와 영양상태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제 18권 제 2호, 1985, pp161 (86).

59) 각주 71)참고

60) 권도원, 체질침 연구, 동경 국제침구학술대회, 서울, 한국, 1965년 10월 24일 p2(27).

기본이론 중 東醫壽世保元의 요약 중에서.

61) 본 논문 II의 ㉑의 4의 2) 痛症의 忍, 不忍에 따른 개체의 차이 참고.

62) 上揭書 『四象醫學』 p83.

性情과 病因病理와의 관계 : “太陽人 哀極不濟則 忿怒激外, 少陽人 怒極不勝則 悲哀動中, 少陰人 樂極不成則 喜好不定 太陰人 喜極不服則 修樂無厭.”

63) 권도원, The Constitutional Acupuncture, an article, seoul, korea, 1962, 영어논문 번역본 p3(4). 사상체질의학의 요약 중.

“이 네가지 유형의 내장 구조는 동일한 생리학적인 원리에 따라 운용되어진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네가지 유형의 내장 구조는 육체적인 면에서 뿐 아니라 精神的인 면에서도 각기 다른

장체질(64)로 나누었다. 이는 四象人 중 少陰, 太陽人을 교감신경긴장체질로, 少陽人과 太陰人을 부교감신경긴장체질로 나눈 팔체질의학의 독특한 의견으로 四象醫學의 性情에 의한 구분과는 차이가 있다.

치료의 목표인 건강한 상태를 『內經』에서는 陰陽和平之人(65)을, 四象醫學에서는 完實無病한 상태(66)를, 팔체질의학에는 적절한 불균형인 조화(적불균형)의 상태를 제시(67)하고 있다. 四象醫學에서는 完實無病이라는 구체적인 臟腑生理로서 건강한 상태를 제시하고 있고, 『內經』과 팔체질의학의 기본적인 입장은 각 개체의 선천적인 조화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內經(靈樞本藏篇)	四象醫學(臟腑의 大小)	팔체질의학(臟器의 強弱)
先天的인 臟腑의 구조가 大小, 高下, 堅脆, 端偏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줌	太陽人 - 肺大肝小 少陽人 - 脾大腎小 太陰人 - 肝大肺小 少陰人 - 腎大脾小	금양인 폐>췌>심>간>신 금음인 대장>방광>위>소장>담 토양인 췌>심>간>폐>신 토음인 위>대장>소장>담>방광 목양인 신>간>심>췌>폐 목음인 담>소장>위>방광>대장 수양인 신>폐>간>심>췌 수음인 방광>담>소장>대장>위

표7) 『內經』과 體質의학의 臟腑의 차이

네 가지 체질적인 생리학을 형성한다.”

64) 권도원, The Constitutional Acupuncture, an article, seoul, korea, 1962, 영어논문 번역본, p12(13).

“소양인은 큰 상부의 장(large upper bowels)을 가지고, 태음인은 큰 하부의 장(large lower bowels)을 가진다. 심포장기가 강한 소음과 태양인은 교감신경긴장체질 즉, 작은 창자를 가진 타입에 가깝다. 소음인은 작은 상부의 장(small upper bowels)을 가지고, 태양인은 작은 하부의 장(small upper bowels)을 가진다. 이것은 심장기가 부교감신경을 흥분하게 하고, 心包장기가 교감신경을 흥분하게 하는 어떠한 관계의 존재를 생각하게 한다.”

65) 논문 II의 ①의 5의 2)五態人 분류 참조

66) 上揭書『四象醫學』p123. 完實無病 중

“太陽人은 吸取之氣가 保命之主가 되어 小便旺多가, 太陰人은 呼散之氣가 保命之主가 되어 汗液通暢이, 少陽人은 陰清之氣가 保命之主가 되어 大便善通이, 少陰人은 陽煖之氣가 保命之主가 되어 飲食善通이 完實無病한 상태이다.”

67) 권도원, 체질침 연구, 동경 국제침구학술대회, 서울, 한국, 1965.10.24.

기본이론 동의수세보원 요약 중.

“체질들은 정신적, 육체적인 pretext(핑계, 구실)를 받으면 받을수록 강한 기관은 점점 더 강해지려는 경향성만을 나타낸다. 이 기관들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능 이하로 약해질 수 없으며, 반대로 약한 장기들은 더 약해지려는 경향성만을 드러낼 뿐이며 그들의 선천적 기능이상으로 더 강해질 수는 없다. 그러므로 체질은 後天적으로 바뀌어질 수 없는 것이다 ... 치료란 이러한 과불균형의 상태를 그 체질이 선천적인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IV. 결론

이상에서 『內經』의 體質理論을 살펴보고, 또한 『內經』의 體質觀과 四象醫學 및 팔체질의학의 體質觀을 간략히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1. 『內經』에는 體質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었으며, 이러한 인식은 개체 특성의 生來的인 차이와 발병의 경향성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2. 『內經』에서 體質의 형성은 선천적으로는 부모와 天氣와 地氣의 영향을 받고, 후천적으로는 음식, 지역, 사회적 신분, 기후 등의 영향을 받는다.
3. 『內經』에서의 體質 분류는 臟腑, 忍痛/不忍痛, 침 반응 등에서 그 가능성을 찾아 볼 수 있었고, 보다 구체적인 體質 분류는 類型的인 접근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각각 肥膏肉人和 肥瘦人, 五態人, 五態人으로 구분할 수 있다.
4. 『內經』에서 體質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생활환경, 성격 및 외형, 臟腑經絡 및 氣血多少를 들 수 있다.
5. 『內經』에서 체질의 특성은 상관성, 경향성, 예측성으로 볼 수 있다.
6. 『內經』에서 體質의 가치는 診斷면에서 “治病必求於本”과 “因人制宜”의 원칙이 적용되고, 치료와 예방면에서 “治未病”의 豫防醫學의인 적극적 治療精神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7. 『內經』과 體質醫學을 비교해보면, 이론면에서 『內經』과 四象醫學의 「本體論」에서 體와 用의 관계와 팔체질의학의 火理에서의 自火와 相火의 관계는 陰陽說에 부합함을 짐작할 수 있고, 대상면에서 四象醫學은 인간의 性情에, 『內經』과 팔체질의학은 “天人相應”의 관계 속에서의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8. 類型구분에서 『內經』은 類型에 따라 肥膏肉人和 肥瘦人, 五態人和 五態人으로, 四象醫學은 性情에서 분화된 臟腑의 大小에 따라 四象人으로, 팔체질의학은 臟器의 強弱에 의해 8개의 體質로 구분하였다.
9. 感覺면에서 『內經』은 忍痛, 不忍痛에 의해 勇怯人으로, 四象醫學은 哀怒喜樂에 따른 四象人으로, 팔체질의학은 교감신경긴장체질과 부교감신경긴장체질로 구분하였다.
10. 건강한 상태에 대해서, 『內經』은 陰陽和平之人을, 四象醫學에서는 完實無病한 상태를, 팔체질의학에서는 적불균형한 상태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參考文獻

1. 洪元植 校合編纂, 《政教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2. 程士德 主編, 《素問注釋匯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3. 王琦, 李炳文 外, 《素問今釋》, 貴州, 貴州人民出版社, 1981
4. 朴贊國 編釋, 《臟象學》, 서울, 成輔社, 1992
5. 林鎮錫 編著, 《黃帝內經概論》, 서울, 법인문화사, 2001
6. 文濬典, 安圭錫, 河智容 外, 《東醫病理學》, 서울, 一中社, 1998

7. 洪元植, 《東洋醫學에 있어서 人性類型에 關한 研究》, 東洋醫學, 제 3권, 82.06
8. 최승훈, 《黃帝內經의 體質論》, 四象醫學會誌, Vol.10. No 2. 1998
9. 匡調元, 《體質病理學研究》, 成都中醫學院學報, 1978,(2)
10. 王琦, 盛增秀, 《略論體質與治療的關係》, 山東中醫學院學報, 1921,(2)
11. 湖北中醫藥研究員 寇華勝, 《論略 內經體質學說》, 新中醫 1984, (6)
12. 楊嘉進, 《內經 體質類型學說初探》, 北京,
北京中醫學院首屆研究生論文匯編, 1981:8-17
13. 北京醫院 曾昭者, 《中國古代的氣質學 說和體質學說》, 中華醫學雜誌, 1957, (7)
14. 匡調元 著, 《中醫體質病理學》, 上海, 上海科學普及出版社, 1996
15. 李相殷, 《漢韓大辭典》, 서울, 民衆書林 1993
16.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17. 權度沅, 《體質針 治療에 關한 研究》, 대한한의학회보 21호, 1996
18. 金淑喜, 김화영, 權度沅, 金容沃의, 《체질의학의 체질분류법에 따른 식품기호도와 영양상태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제 18권 제 2호, 1985
19. 권도원, 《체질침 연구》, 동경 국제침구학술대회, 서울, 한국, 1965년 10월 24일
20. 권도원, 《The Constitutional Acupuncture》, an article, seoul, korea, 1962(번역본)
21. 권도원, 《화리》, 과학사상30, 서울, 99.8

